

## 고등학생들의 학교 외모규제에 대한 지각 및 태도

이정현\*·이윤정\*\*

성남문원중학교\*·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

## Students'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Regulations of High Schools

Lee, Jung-Hyun\*·Lee, Yoon-Jung\*\*

*Sungnam Moonwon Middle School\*·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e appearance regulations of many middle and high schools have received attention as the social concern over infringement of students' human right is heightened.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students'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related regulations enforced by high schools in Seoul.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866 freshmen and sophomore students from six Co-E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Students evaluated each of the 50 appearance-related regulations in terms of how strong they perceive the regulation is enforced in their school, how important they believe the regulation is, and finally, how much they actually observe it.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gulations related to school uniforms are perceived important, and also were well-observed. Students, however, showed low levels of observance toward some regulations---i.e., regulations of hair styles or garments worn with school uniforms(coats, scarves, or turtlenecks).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also found to influence their perception and observance of the regulation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for teachers and administrators. For these regulations to be more effective, it was suggested that schools communicate the importance of appearance-related regulations to students and convince them, or consider revising their policies to reflect students' perspectives.

**Key Words:** 고등학교(high schools), 외모규제(appearance regulations), 강도 지각(strength perception), 중요도 지각(importance perception), 준수도(observance level)

## I. 서론

현대 사회의 변화 중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집단에 의한 개인자유 의 규제와 억압에 대한 반발과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의 한 예로, 학교에서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반발하며 청소년들의 자율성 요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시도가 거리 집회 등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두발과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를 통제라 일컬으며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통제의 대상”, 2004). 실제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65개 학교의 생활항목을 분석한 결과, 두발 자유화를 허용하는 학교는 1개교(0.7%)밖에 되지 않았으며, 신발이나 가방까지 규제하는 학교는 각각 70%와 37.4%였다(“21세기 교실”, 2005). 이처럼 청소년들 간에 외모규제에 대한 반발의식이 생기면서 학생과 교사들 간에 강제이발이나 벌점, 체벌 등 무력의 형태를 취했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생활검열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김동일·류지영, 2002).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는 인권침해나 교육권 행사냐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0)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복장과 두발에 관한 학교규율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학부모들은 학교수업이나 흡연, 음주에 관한 규율 뿐 아니라 학생복장에 관한 규율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사들은 수업 및 학교질서에 관한 규율과 도덕성 및 예절에 관한 규율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규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청소년, 부모, 교사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 편에서는 ‘규제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인권침해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당한 교육권 행사다.’(“두발규제”, 2005.5.13)라고 주장하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외모규제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청소년들의 자아발달에 있어서 외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행해지는 외모규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어떤 규제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현행 외모규제를 재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해 나가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외모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며 어떤 태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서 행해지는 외모 관련 규제항목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규제항목 각각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과 외모규제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의 외모 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청소년들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외모 규제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의 외모행동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른 시기보다 높다.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이금룡, 1998). 또한 자아의식도 민감하게 되어 자신의 신장이나 체격, 용모를 타인과 비교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특히 외모를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욕구가 강한 이 시기에 청소년의 외모활동은 하나의 형태의 자아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키와 체중, 얼굴 모습 등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외모표현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의복이나 외모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은 전반적인 자아개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을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좋은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금룡, 1998; Brooks-Gunn & Warren, 1988).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아도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기존중감이 낮음을 밝혔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외모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양진·강혜원, 1996). 자아는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역할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사회집단에서 받은 승인과 거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즉 집단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진 신체외모라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신체외모는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므로 청소년기는 의복과 외모에 대한 의존이 높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신체의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거나 의복이나 신발, 머리형, 가방, 액세서리 등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며 개성적인 외모를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외모에 대한 관리활동이 늘어나며, 체중조절, 운동, 화장, 신체변형, 머릿손질 등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외모를 관리 한다(김정애·김용숙, 2003). 그러나 그에 비하여 이러한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여부에 의해 자아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외모와 관련된 교복, 머리, 신발, 교복 외 외모활동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지 못할 때 심한 좌절감을 겪을 수 있다.

## 2. 학교에서의 외모규제

학교에서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되는 외모규제 중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은 교복을

통한 통제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시작되었으며 1910년 한성여고에서 흰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착용하여 1983년 교복자율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교복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1986년부터 서서히 다시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다수 학교가 다시 교복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복은 학생들의 자율과 자유보다는 질서와 복종심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통제위주의 교육은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인격의 학생들을 배출하게 되었다(전병재, 1984). 학교에서의 외모에 대한 규제는 용의복장 규율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복뿐만 아니라 다른 외모 측면도 포함한다. 이명희(1999)는 등교 시 복장 규제에 대해서 교칙위반 의복, 교복을 꼭 끼거나 짧게 고쳐 입기, 머리에 무스, 스프레이 사용, 파마, 염색 등 머리 변형, 장신구 착용, 교칙위반 신발, 교칙위반 양말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희(1999)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규제복장을 거부하며 남자보다 여자가 복장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더 높았다고 하고 있다.

외모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다움’이라는 정형화된 틀은 사회의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인위적 개념이며, 이 틀 속에 학생들을 제한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병성, 1982; 표시열, 2000). 이들은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제 16조에서도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는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런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라는 항목을 근거로 아동들의 인권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표시열(2000)은 의복이나 두발의 형태를 일정한 것으로 강요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하면서 두발자유화(길이, 색깔 등)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관련되며, 직접적으로는 사생활의 자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의 외모규제를 반대하고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로 1969년의 Breen 대 Kahl 판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 미국연방고등법원은

공립의 고등학교 남학생 머리길이를 일정기준으로 제한한 학교항목을 위한 결정하였다.

자율존중을 주장하는 측은 청소년은 학교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규범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인격을 형성하므로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민주적이며 자율성을 키워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창의력과 자율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치의 다양화와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현택수, 2000), 따라서 외모 면에서도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학교는 상이한 성장과정과 가족배경 및 각기 다른 능력과 성격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규범이나 단체의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는 교육의 장소이며, 학생들에게 '학생다운' 일정한 복장을 요구하고, 그러므로 이를 지키도록 복장과 관련된 일정한 규범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경아, 1983).

학교는 훈육을 위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규율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외모규제가 개인의 인권의 제한이 아니라는 법정의 판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중학생 삭발을 항복한 교칙이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으며(1985.11.12 판결) 미국에서는 (1965 Iowa주) 월남전 반대 의사표시로 검은 완장을 두르고 등교한 학생에 대한 규제로 소송이 제기되자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의 경우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예가 있다. 외모규제에 대한 학교의 교육 재량권을 인정한 또 다른 판결로 1972년의 Karr 대 Chmidt 판례는 두발길이에 대한 학교항목을 위반한 고등학생의 상급반으로의 진학을 거부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미국연방고등법원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나 스타일로 머리를 기를 어떤 헌법상의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표시열, 2000). 이 판결의 근거는 첫째, 학생 두발규제로 인한 자유권의 침해는 일시적인 성격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해당 학칙에서 학생들의 복장 등에 상당한 선택의 여지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논거는 학교

당국은 일상적인 학교관리행위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져야 하며, 학교 행정가와 교사는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일상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및 학교당국은 합리적인 학생지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수광, 2000).

### 3.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학교적응에 관련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학교생활이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학교생활 적응이 잘 되며(양민철, 1995), 특히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장선철·송미현, 2004).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만족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끼게 되므로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자율성을 규제받을 때, 특히 청소년들이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를 당할 때 청소년들은 학교로부터의 규제를 무시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외모규제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의 외모규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떤 규제들을 더 수용하거나 덜 수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으나, 두발규제 등에 관한 청소년들의 불만은 촛불시위 등 사회적으로 표면화된 바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교복만족도나 교복변형행동에 대한 연구들(이애경·이혜자·한영숙, 2006; 전채령·김용숙, 2007; 정혜경·김세희, 2004; 최휘·전은경·유화숙, 2008)은 청소년들이 교복에 대해서 청소년의 감각에 맞지 않고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낮음을 밝혔고, 다양한 교복변형행동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일률적인 모양의

교복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외모를 통하여 다양한 자아를 표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하여 다소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모규제의 내용을 밝히고자 2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I 은 2005년 1월 15일에서 2월 10일까지 강남의 남녀 중·고등학생 8명, 하남의 중·고등학생 8명, 총 16명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의 외모규제에 대한 질문, 청소년들의 외모행동에 관한 질문,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외모와 관련된 소비행동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주제와 문항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 2를 통해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두 번째 예비조사는 강남과 강북의 남녀공학 고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인문계 남녀공학 고등학교 3개교씩 총 6개 학교의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866부를 분석하였다. 우선 용의복장 규율 등을 참조하여 50개의 외모관련 규제항목을 추출하여, 각 규제항목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 등을 측정하였고, 청소년들의 성별, 거주 지역, 학년, 용돈, 성적(자기보고) 등을 측정하였다. 분석은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학년	1학년	393	45.4
	2학년	473	54.6
성별	남	410	47.3
	여	456	52.7
지역	강남	459	53.0
	강북	407	47.0
한달 용돈	5만원 미만	391	45.2
	5만~10만원	321	37.7
	10만~20만원	99	11.4
	20만원 이상	55	6.4
성적(자기보고)	상위권	177	20.4
	중상위권	289	33.4
	중하위권	249	28.8
	하위권	151	17.4
전체		866	100.0

SPSS 12를 사용하여 외모규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외모규제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산분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측정도구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중·고등학교 용의복장 규율을 참고하여 학교의 외모규제 강도, 청소년의 외모규제 준수 정도, 외모규제 중요도 각 50문항을 제작하였다.

우선 외모규제와 관련된 50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외모규제 유형별 세부 항목

규제 유형	세부 항목
(1) 머리길이와 변형, 장식의 규제	브리지, 염색 금지; 파마, 코팅머리 금지; 삭발, 핑크머리 금지; 가발, 모자 착용 금지; 머리 장식 금지; 왁스, 무스, 젤 금지; 머리길이 제한; 단정한 머리 권장; 유행머리 금지; 색머리핀과 끈 금지; 드라이, 고데기 금지
(2) 걸옷의 규제	화려한 외투 금지; 외투길이 관련항목; 걸옷관련 항목

<표 계속>

규제 유형	세부 항목
(3) 교복이외 소품규제	교표, 명찰 착용; 실내 외투, 목도리 금지; 넥타이, 리본, 단추부착; 현장학습 시 교표부착; 유행성 벨트 금지; 장신구 착용 금지
(4) 교복규정 외 착용 규제	교복변형 금지; 교복과 체육복 혼용 금지; 상의, 조끼 착용; 플라티 색깔 제한; 셔츠 착용 항목; 힙합바지 금지; 쫄바지 착용금지; 속옷 착용 관련항목; 색깔 속옷금지; 어른용 사치품 금지; 양말관련 항목; 성인용 양말 금지; 원색 양말 금지
(5) 가방 및 신발 규제	성인용 신발 금지; 화려한 가방 금지; 성인용 가방 금지; 보조가방 관련항목; 고가의 가방 금지; 학생용 단화 항목; 화려한 색 신발 금지; 브랜드 운동화 제한; 운동화 장식 금지
(6) 화장품 사용 규제	서클렌즈 금지; 눈썹변형 금지; 매니큐어 금지; 피어싱, 문신 금지; 화장품 휴대 금지; 향수의 사용 금지; 컬러로션 금지; 립글로스 금지

외모규제 강도는 “우리학교의 외모항목에 대한 규제와 규칙준수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문항의 각 문항에 대하여 (1) 매우 약하다, (2)약하다, (3)보통이다, (4)강하다, (5)매우 강하다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규제강도 지각 50문항 총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 였다. 외모규제 준수도는 “우리학교의 외모항목에 대한 규제와 규칙준수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문항의 각 문항에 대하여 (1)항상 지키지 않는다, (2)지키지 않는다, (3)보통이다, (4)지키는 편이다, (5)항상 지킨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준수도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8$ 이었다. 외모규제 항목 중요도 정도는 “우리학교의 외모항목에 대한 규제와 규칙준수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문항의 각 문항에 대하여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중요하다, (5)아주 중요하다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항목 중요도 지각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 이었다.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학년, 성별, 부모 총수입, 부모 직업, 용돈, 거주지역, 성적을 측정하였다.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대상이었으며,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포함하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서울의 강남, 강북지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한 달 용돈의 금액과 성적 등도 질문에 포함시켰으며, 성적은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의 분류 중 자신이 속한 범주를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를 사용하여 산술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외모규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학교의 외모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과 태도

##### 가. 학교 외모규제의 강도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외모규제의 종목별 강도 지각을 제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의 외모규제의 강도는 머리길이와 변형, 장식의 규제에 대하여 가장 높아 두발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교의 규제강도를 가장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그만큼 머리를 통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겹옷에 대한 규제, 교복의 규정의 착용에 대한 규제 등의 평균값이 컸는데, 이는 겹옷이나 교복의 경우 가시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외모규제에 대한 강도 지각

구분	머리길기와 변형, 장식규제	겉옷 규제	교복외 소품 규제	교복규정의 착용 규제	가방 및 신발 규제	화장품 사용 규제
평균	3.05	2.86	2.67	2.77	2.53	2.65
표준편차	.81	.93	.81	.74	.89	.90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강도 지각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특히 브리지, 염색머리( $m=3.53$ ), 파마, 코팅머리( $m=3.41$ ) 등의 머리 변형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교표, 명찰( $m=3.50$ ) 항목, 높은 굽의 신발과 군화 형태의 신발( $m=3.13$ ), 피어싱과 문신( $m=3.00$ )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리고 특징이 뚜렷한 신발인 에나멜화, 라카화 등에 대한 규제( $m=3.13$ )의 강도가 높게 지각되었으며, 학교 등교 시 부착해야 하는 명찰, 교표( $m=3.50$ )와 학생들이 장식을 위해 하는 피어싱이나 지워지는 문신 등( $m=3.00$ )도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항목들로 지각되었다.

그에 비하여 고가의 가방 제한( $m=2.43$ ), 성인용, 등산용이나 여행용 가방의 제한( $m=2.45$ ) 및 비싼 브랜드 운동화 착용 금지( $m=2.22$ ), 서클렌즈( $m=2.49$ ), 향수의 사용 금지( $m=2.44$ ), 현장학습 시 교표를 자유복에 부착( $m=2.29$ ), 양말색은 동복과 하복 착용 시 한 가지 색만 항목( $m=2.30$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의 강도 지각이 2.5이하로 낮게 지각되고 있었다. 약한 외모규제는 학교에서 별로 구속을 받지 않거나 복장검사 시 구분이 크게 가지 않거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항목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 나. 학교 외모규제 중요도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의 모든 항목의 평균은 2.45로 나타나 학교 외모규제 강도지각의 전체 평균 2.76, 준수도

전체 평균 3.53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하여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채 별을 피하기 위하여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모규제 중요도 항목을 각 유형별로 묶어서 평균을 구한 값이 <표 4>에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하게 지각된 유형은 화장품 사용 규제( $m=2.63$ )였으며, 가장 중요도가 낮게 지각된 유형은 겉옷 규제( $m=2.22$ )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도 지각이 높은 화장품 사용 규제조차도 1부터 5점까지의 점수로 측정된 척도에서의 중간값인 3(보통이다)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구체적 항목별로 보았을 때, 피어싱과 문신 금지( $m=3.18$ ), 브리거나 염색 머리 금지( $m=3.11$ ), 높은 통굽신발, 부츠, 성인용 에나멜화나 군화형태의 신발금지( $m=3.05$ )로 나타나 교복 외에 눈에 띄는 머리변형, 피어싱이나 문신의 장식과 같이 특징이 두드러진 활동에서의 규제에 대해 학생들은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이에 비하여 허가된 겉옷만 착용하여야 한다든지( $m=2.19$ ), 실내에서의 외투, 목도리 착용을 금지한다든지( $m=2.14$ ), 남녀학생들의 머리길이( $m=2.06$ )와 머리형( $m=2.02$ )에 대한 규제, 학생용 단화 및 운동화 착용( $m=2.02$ ), 색깔 머리핀과 머리끈 금지( $m=2.08$ ), 동하복 착용 시 검은색이나 흰색 양말만 착용하도록 하는 등( $m=1.87$ )의 규제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낮았다. 이 항목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는 항목들임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거나 화장품 사용, 피어싱, 문신, 염색 등의 외모표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외에 구체적인 머리길이, 머

〈표 4〉 외모규제 종목별 중요도 지각 평균

구분	머리길기와 변형, 장식규제	겉옷 규제	교복외 소품 규제	교복규정의 착용 규제	가방 및 신발 규제	화장품 사용 규제
평균	2.46	2.22	2.41	2.49	2.34	2.63
표준편차	.80	.84	.77	.76	.78	.91

리핀 색깔, 교복에 맞춰 입는 겹옷이나 장신구류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와 관련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강하게 지각되었던 데 반하여 파마나 염색 머리, 삭발, 핑크머리 등의 강도 높은 변형에 대한 규제 이상으로 머리길이를 제한하고 단정한 머리를 권장하거나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머리형을 금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도 인식이 매우 낮아 대부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외모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학교 외모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준수도

외모규제 준수정도는 규제강도 지각이나 중요도 지각에 비해 평균치가 높았다. 학교 외모규제 강도지각은 평균 2.76,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의 모든 항목의 평균은 2.4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여 준수도 전체 평균은 3.53로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중요도 지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준수도가 높은 것은 학교의 외모규제 거부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점이나 각종 처벌에 대한 개인적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외모규제에 준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모규제에 대한 준수도를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다. 머리길이와 변형, 장식과 관련된 규제(m=3.68)에 대한 준수가 가장 높았으며 가방 및 신발 규제(m=3.36)에 대한 준수도가 가장 낮았다. 가방 및 신발에서는 학생들이 낮은 준수도를 나타내는 것은 학교에서의 규제강도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학생들은 비교적 규제가 약한 가방이나 신발을 이용하여 개인의 차별화된 외모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준수도 평균값을 검토하였을 때, 평균이상의 높은 준수를 보이는 항목은 두드러진 머리변형

이나 머리장식, 화장행위, 성인용 신발이나 구두 착용 등의 외모규제의 준수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규제하기가 용이하거나 학생들의 신체를 변형하므로 신체 보호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준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준수도가 낮은 항목들은 교복착용 시 함께 착용하는 의복의 색상 제한, 현장학습 시 교표 부착 항목 등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교복 위에 입는 외투, 색깔이 있는 신발, 브랜드 운동화, 성인용 양말 등은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남과 다르게 외모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므로 다른 항목에 비해 준수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따른 외모규제 세부 항목의 분류

이상과 같이 학교에서의 외모규제의 세부 항목들은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비중으로 지각되고 있지 않았으며 규제의 강도, 중요도, 준수도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규제 강도 또는 중요도를 인식하는 정도에 비하여 청소년들의 준수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규제 강도가 높은 항목일수록 준수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의 규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항목들도 있고 학교의 규제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고 있는 항목들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외모규제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며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모규제 강도 지각 및 중요도 지각과 준수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50개 외모규제 항목들을 분류하여 표로 정리한 내용이 <표 6>과 같다.

<표 5> 외모규제 유형별 준수도 평균

구분	머리길이와 변형, 장식규제	겹옷 규제	교복외 소품 규제	교복규정의 착용 규제	가방 및 신발 규제	화장품 사용 규제
평균	3.68	3.38	3.42	3.53	3.36	3.67
표준편차	.84	1.00	.84	.80	.98	1.03

〈표 6〉 강도 지각 및 중요도 지각과 준수도에 따른 외모규제 항목의 분류

		준수도 높음 (3.75 이하)	준수도 낮음 (3.75 이하)
규제 강함 (2.76 이상)	중요도 높음 (2.45 이상)	브리지, 염색 금지 교표, 명찰 착용 파마, 코팅머리 금지 삭발, 핑크머리 금지 가발, 모자 착용 금지 성인용 신발 금지 피어싱, 문신 금지 머리 장식 금지 힙합바지 금지 상의, 조끼 착용 왁스, 무스, 젤 금지 운동화 장식 금지 매니큐어 금지 교복변형 금지 어른용 사치품 금지 유행성 벨트 금지	화려한 외투 금지 넥타이, 리본, 단추부착
	중요도 낮음 (2.45 이하)		머리길이 제한 단정한 머리 권장 유행머리 금지 실내외투, 목도리 금지 겉옷관련 항목 플라티 색깔 제한 교복혼용 금지
규제 약함 (2.76 이하)	중요도 높음 (2.45 이상)	드라이, 고데기 금지 쫄바지 착용금지 서클렌즈 금지	
	중요도 낮음 (2.45 이하)	눈썹변형 금지 속옷 착용 관련항목 컬러로션 금지 색깔 속옷금지 화장품 휴대 금지 향수의 사용 금지	장신구 착용 금지 외투길이 관련항목 색머리핀과 끈 금지 셔츠 착용 항목 성인용 양말 금지 립글로스 금지 화려한 가방 금지 성인용 가방 금지 원색 양말 금지 보조가방 관련항목 학생용 단화 항목 고가의 가방 금지 화려한 색 신발 금지 양말관련 항목 현장학습 시 교표부착 브랜드 운동화 제한

학교에서의 규제가 강하고 청소년들의 중요도 인식도 높아 준수도도 높은 항목들은 브리지, 염색, 파마, 코팅, 삭발, 왁스, 무스, 젤, 스프레이 사용, 가발, 모자 착용, 머리의 화려한 장식 금지 등이나 화려한 신발, 화장 및 장

식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외모관리 활동이나 교복의 올바른 착용과 관련된 규제들이었다. 즉,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이 규제 내용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학교의 규제는 강하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낮아 학생들의 준수도는 낮은 항목들이다. 규제강도는 강하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준수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규제에 대한 거부이며 개인의 외모 표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규제 내용이 학교와 개인 간 갈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규제강도는 강하나 학생의 중요도 인식이 낮은 항목은 주로 일상적인 외모활동에 대한 것들이었다. 즉, 규제가 강해도 학교 밖에서는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외모활동이므로 학생들의 준수의지가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머리 길이와 유행하는 머리스타일을 금지한다든지, 실내에서 외투나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동하의 교복을 혼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 등은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중요도 인식이 낮아 준수도가 낮은 항목들이다. 규제가 강한 항목들 중 학생들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준수도가 높은 항목은 없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규제가 강해도 스스로 중요도를 지각하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화려한 외투를 금지하거나, 교복의 일부분인 넥타이, 리본, 단추부착 등을 확인하는 외모규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외모규제가 강하고 학생들이 중요도는 인식하나 잘 지키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규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지속적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학교의 규제강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중요도 지각이 높아 학생의 준수도가 강한 것은 눈썹변형 금지, 컬러로션 금지, 화장품 휴대 금지, 향수 사용 금지, 속옷 착용 관련 항목들이었다. 이는 학교의 규제가 약해도 개인이 지켜야 할 것들로 내면화 되어 자발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다. 드라이, 고데기 사용의 금지와 서클렌즈 착용 금지, 풀바지를 교복 안에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규제도 약하고 중요도 지각이 낮으나 준수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규제가 없어도 학생들 간에 일상화되지 않은 활동들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학교의 규제강도도 약하고 준수도도 낮은 항목은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의 장신구나 양말, 가방, 신발, 머리장신구

등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 교사들이 지도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규제로서의 의미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가방, 신발, 장신구 등의 소품류를 통해서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스스로 중요성을 느낄 때에는 그 항목에 대하여 준수하나 중요도가 낮다고 지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규제가 약한 항목에 대해서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외모규제의 일부 항목들은 학교 측에서도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고 학생들도 준수하고 있지 않아 규제로서의 의미가 적은 항목들도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학생들의 개성표현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개인별 특성에 따른 규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

연구문제 2로 외모규제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 등에 개인별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거주 지역(강남/강북), 학년, 용돈, 성적(자기보고) 등에 대하여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하였다.

### 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외모규제 강도 지각

외모규제 강도 지각을 개인별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학년,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7>). 성별로는 남학생( $m=2.86$ )이 여학생( $m=2.66$ )에 비하여 규제강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t=4.09$ ). 학년은 1학년( $m=2.88$ )보다 2학년( $m=2.65$ )이 규제강도 지각이 낮게 나타났다( $t=4.65$ ). 성적 면에서는 스스로 하위권( $m=2.88$ )이라 응답한 학생이 상위권( $m=2.69$ )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학교에서의 외모규제 정도가 높다고 답하였다( $F=2.80$ ).

〈표 7〉 개인적 특성에 따른 외모규제 강도 지각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410(47.3)	2.86(.75)	t=4.09***
	여자	456(52.7)	2.66(.68)	
학년	1학년	393(45.4)	2.88(.75)	t=4.65**
	2학년	473(54.6)	2.65(.69)	
성적	상위권	177(20.4)	2.69(.73) a	F=2.80*
	중상위권	289(33.4)	2.70(.73) a	
	중하위권	249(28.8)	2.79(.68) a	
	하위권	151(17.4)	2.88(.75) a	

\* p<0.05, \*\* p<0.01, \*\*\* p<0.001.

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 정도를 개인별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지역, 용돈,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성별 비교 시 여학생(m=2.53)이 남학생(m=2.36)에 비하여 중요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51), 지역별로는 강북 지역의 학생(m=2.50)이 강남 지역의 학생(m=2.40)보다 중요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6). 용돈은 5만원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받는 학생들에 비하여 20만원 이상 받는 학생들이 외모규제가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다(t=6.62). 성적 면에서는 중상위권의 학생(m=2.55)들이 중요도 지각이 상위권이나 하위권 집단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으나(t=2.76) 성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외모규제 준수도

외모규제 준수도와 개인적 특성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성별, 지역, 학년,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성별로는 남학생의 준수도(m=3.62)가 여학생(m=3.45)에 비하여 높았다(t=3.29).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제복장의 거부가 심하다는 선행연구(이명희, 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강북지역(m=3.60)이 강남 지역(m=3.47)보다 준수도가 높았으며(t=-2.41), 학년별로는 1학년(m=3.60)의 준수도가 2학년(m=3.47)보다 높았다(t=2.30). 이명희(1999)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규제복장에 대한 거부가 높다고 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준수를 덜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용돈에 대해서는 용돈이 가장 작은 5만원 미만인 학생들의 준수도(m=3.63)가 가장 낮았고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준

〈표 8〉 개인적 특성에 따른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410(47.3)	2.36(.78)	t=-3.51***
	여자	456(52.7)	2.53(.60)	
지역	강남	459(53)	2.40(.71)	t=-2.16*
	강북	407(47)	2.50(.67)	
용돈	5만원 미만	391(45.2)	2.52(.67) a	F=6.62***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321(37.0)	2.45(.66) a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99(11.4)	2.37(.75) a	
	20만원 이상	55(6.4)	2.09(.90) b	
성적	상위권	177(20.4)	2.39(.75) a	F=2.76*
	중상위권	289(33.4)	2.55(.65) a	
	중하위권	249(28.8)	2.42(.64) a	
	하위권	151(17.4)	2.39(.80) a	

\* p<0.05, \*\*\* p<0.001.

〈표 9〉 개인적 특성에 따른 외모규제 준수도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자	410(47.3)	3.62(.86)	t=3.29**
	여자	456(52.7)	3.45(.71)	
지역	강남	459(53)	3.47(.81)	t=-2.41*
	강북	407(47)	3.60(.77)	
학년	1학년	393(45.4)	3.60(.77)	t=2.30*
	2학년	473(54.6)	3.47(.80)	
용돈	5만원 미만	391(45.2)	3.63(.77) a	F=5.14**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321(37.0)	3.49(.75) ab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99(11.4)	3.33(.80) b	
	20만원 이상	55(6.4)	3.39(1.03) ab	

\* p<0.05, \*\* p<0.01.

수도(m=3.33)가 가장 낮았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외모규제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중요도 지각은 낮았으나 준수도는 높았다. 또한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지역 학생들보다 중요도 지각과 준수도가 높았다.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강도 지각과 준수도가 높았으며, 용돈을 많이 받는 학생이 적게 받는 학생에 비하여 외모규제의 중요도를 낮게 지각하고 준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에 비하여 강도 지각이 높았으며, 중상위권 학생들이 외모규제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내 6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모규제의 강도를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각 규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각 항목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체로 학교에서의 외모규제가 강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지각한 항목은 머리의 길이와 변형, 장식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또한 교복 위에 착용하는 외투나 카디건에 대한 규제와 교복의 착용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제도 강하였고 교복 외의 소품들이나 가방, 신발, 화장품 사용에 관한 규제는 비교적 규제가 약하였다.

청소년들은 규제의 강도에 비하여 중요도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규제 항목들에 대하여 평균값이 중간값(3-보통이다) 이하였다. 이는 학교의 외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유형의 규제는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규제였고, 그 외에 교복의 규정 외 착용에 대해서도 중요도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머리길이, 변형, 장식의 규제에 대해서는 평균 정도의 중요도를 보았다.

전체적으로 지각된 규제의 강도와 중요도에 비하여 준수도가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은 머리와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가장 많이 준수한다고 답하였으며 화장 규제에 대해서도 많이 준수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학교의 규제강도가 높거나 청소년들의 중요도 인식이 높은 항목유형에 대한 준수도가 높았다.

청소년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따라 50개의 세부 규제 항목을 분류해 본 결과 규제의 강도가 높은 항목이라도 청소년들의 중요도 인식이 높아야 준수도가 높았다. 규제가 강한 항목들 중 교복에 교표, 명찰 등을 적용하는 기본적 항목들과 화장, 문신, 피어싱, 파마, 염색, 매니큐어 등 강도가 높은 외모활동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높이 지각하여 준수도도 높았으나 머리길이를 제한하고 실내에서 외투나 목도리를 금지하는 것, 플라티나 외투의 색깔을 제한하는 것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중요도 지각이 낮아 준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강도가 낮게 지각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중요도를 지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모규제에 대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강도 지각에는 성별, 학년, 성적과 관련이 있었고, 중요도 지각의 경우 성별, 지역, 용돈, 성적과 상관이 있었다. 준수도의 경우 성별, 지역, 학년, 용돈이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3가지 변수와 모두 상관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도는 낮게 중요도는 높게 지각하는 데 비해 준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남녀공학임에도 불구하고 남녀학생의 강도 지각이 다른 점은 학교에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에게 학교현장에서 좀 더 관대한 외모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본 연구는 외모규제 항목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학교에서 외모와 관련되는 규제방침을 결정하는 데 교육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대체로 외모규제에 대한 강도지각과 준수는 높으나 중요도 지각이 낮아 강한 규제에 순응하는 형태의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외모규제에 대한 규제 강도 지각과 준수도는 높은 반면, 중요도 지각은 낮았다. 이처럼 강요에 의한 순응이 아닌, 보다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요도가 낮은 규제를 철폐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규제들과의 차별을 뚜렷하게 함으로써 학교 외모규제 방침을 학교 스스로 무위화 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규제가 아무리 강해도 스스로 중요성을 인식하는 항목에 대하여 준수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외모규제 방침을 세울 때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스스로 중요한 규제항목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외모규제에 대한 지각이 달랐는데, 대체로 남학생일수록, 그리고 강남지역의 학교에 다니거나, 용돈이 많거나,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일수록 외모규제의 강도에 대한 지각이 높고, 중요도 지각은 낮고, 준수도가 낮은 특성을 보여 이들 청소년들의 외모 지도를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의 일부 지역의 특정 학교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의 외모규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규제강도는 학교에서 실제로 가해지는 규제의 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외모규제에 대한 부모, 교사 등의 시각을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시각과 비교해 본다면 유익할 것이며, 다양한 환경 변인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여 외모규제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낸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학교의 외모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 및 태도가 그들의 심리적 안정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동일·류지영(2002). 학교규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저항운동. *청소년학연구*, 9(2), 233-254.
- 김병성(1982). 한국교육을 생각한다(세계교육의 흐름 속에서): 자율화와 학생 지도. *교육개발*, 20(5).
- 김양진·강혜원(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 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김정애·김용숙(2002).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1), 55-73.
- “두발 규제는 인권침해”, “적절한 제한 비행 막아”(2005. 5. 13). *한국일보*.
- 양민철(1995).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적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리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구요(2004. 11. 3). 청소년뉴스.

이경아(1983). **고교생의 적응에 관한 가치관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금룡(1998). 외모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11, 0-18.

이명희(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 143-158.

이수광(2000). ‘두발자유화’ 주장과 ‘지금 이곳’의 학교현실. **새교육**, 12월호, 100-105.

이애경·이혜자·한영숙(2006).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교복만족도 및 교복변형행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33-148.

장선철·송미현(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전병재(1984). 교복 및 두발자유화 이후의 청소년 지도와 대책. **한국청소년 연맹**, 5호, 50-54.

전채령·김용숙(2007). 고등학생의 교복태도에 따른 교복변형과 패션 액세서리 착용. **복식**, 57(2), 132-142.

정혜경·김세희(2004).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 행동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4), 136-150.

표시열(2000). 학생의 기본권과 두발, 복장의 규제정책. **교육법학 연구**, 12, 208-229.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청소년생활실태 연구**.

**21세기 교실 바리칸 고속도로(2005. 5. 11)**. 한겨레신문.

최휘·전은경·유화숙(2008). 부분 자율화를 통한 교복 개선에 관한 연구. **의류산업학회지**, 10(1), 76-82.

현택수(2000). 한국인의 생활문화와 학교문화 교육 - 옷 입기와 유행의 교육. **마당**, 21(11).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 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rooks-Gunn, J. & Warren, M. P.(1988). The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in 9 to 11 year-old girls. *Child Development*, 59, 161-169.

<국문요약>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면서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모규제에 대한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등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데 있다.

서울시의 6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생 8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50개의 외모관련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 항목들에 대한 규제 강도와 중요성에 대한 지각과 준수도를 질문하였다. 학생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따라 50개의 세부 규제 항목을 분류해 본 결과 규제의 강도가 높은 항목이라도 학생들의 중요도 인식이 높아야 준수도가 높았다. 규제의 강도가 낮게 지각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중요도를 지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모규제에 대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강도 지각에는 성별, 학년, 성적과 관련이 있었고, 중요도 지각의 경우 성별, 지역, 용돈, 성적과 상관이 있었다. 준수도의 경우 성별, 지역, 학년, 용돈이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도는 높게 중요도는 낮게 지각하는 데 비해 준수도는 높았고, 강북학생일수록, 용돈이 적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규제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중요도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준수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교사들과 교육행정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모관련 항목들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키거나 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외모관련 규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외모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4월 23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4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17일